

계시록 4장 공중 들림받음

계시록 4:1

이제 계시록의 세 번째 부분이다. 4장은 헬라어로 'meta tauta(이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4:1)

이제부터 다루어지는 내용은 땅에서의 교회 역사의 마지막이며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이다. 마지막 네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예수님은 재림에 관해 말씀하셨다. 다시 오실 것을 교회에 경고하셨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 대환난을 면치 못하리라고 경고하셨다.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서 시험의 때에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일, 즉 교회가 이 땅에서 그 증거를 다 마친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후에 주께서 하늘로 좇아 강림하신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4:16-17)

교회는 칠 년 동안 하늘에 옮겨져 있을 것인데, 이 칠 년 동안 땅에는 대환난이 있을 것이다.(교회의 공중 들림받음에 대한 주석을 더 참고하려면 본 저자의 『Snatched Away!』를 보라)

교회의 증거 사역이 모두 마치면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게 된다.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의 몸 된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울릴 것이다. “이리로 올라오라!”

나는 “일어나 씻으라!”는 나팔 소리와 “잠자리에 들라!”는 나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 “와서 먹으라!” 그리고 “돌격하라!”는 나팔 소리도 들어보았다. 그러나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나팔 소리가 어떠한 종류의 것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들으면 곧 알아차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자들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고전15:51-52).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4:17). 성경에는 우리가 영원히 하늘 나라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단지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분을 믿는 자인 우리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이 세상에 다시 올 것이다. 그분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시면 우리도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나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아무 할 일 없이 손가락이나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한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은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이 땅에 대환난이 있을 칠 년 동안 하늘 나라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와서 통치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와서 천 년 동안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며 다스릴 것이다.

만일 주님이 나에게 구름 위에 앉아 손가락이나 만지작거리며 있으라고 명하신다면 나는 온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든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다릴 수가 없다. 그것이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는 것보다 훨씬 더 흥분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나는 하늘 나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당신네들은 늘 ‘멀지 않아 곧 있을 쾌락’ 또는 ‘하늘에 있는 완전한 행복’ 같은 얘기만 하는데, 그보다는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나는 하늘 나라에 가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하늘 나라를 고대한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14:2-3)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해결책이 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을 것인데, 그분의 함께하심 속에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시는 데 6일 걸렸다. 그런데 하늘 나라는 2천 년 동안이나 준비하고 계신다. 지금쯤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라! 그런데도 하늘 나라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가?

교회가 들림받는 일은 계시록 4:1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은 시간적으로 교회가 완성된 이후이다. 요한은 “위로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나팔 소리를 듣는다. 이제부터 요한은 교회가 이 땅에서 떠난 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

계시록 4:2-7

하늘나라의 광경이 묘사되고 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뒤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4:2)

요한이 ‘성령에 감동’된 것은 혈과 육으로는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보좌”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좌이다. 요한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형체를 본 것은 아니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4:3)

벽옥은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투명한 수정석으로 자주빛을 띠고 있다. 홍보석은 선홍색이다. 그리고 홍보석은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흉패에 붙였던 첫번째 돌이고, 벽옥은 마지막에 붙였던 돌이다.(출28:17-20)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4:3)

요한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겠는가! 그는 투명한 수정석으로 선홍빛이 나는 자주빛의 찬란한 벽옥과 홍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둘러싼 에머랄드 빛의 녹색 무지개도 보았다.

또 보좌에 둘러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4:4)

흠정역 성경에서 ‘자리(seats)’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보좌(thrones)’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십사 명의 장로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믿는 성경 해석가들이 많다. 이들은 계시록 19:8에서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흰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의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십사 장로들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 교회인 우리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았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다. 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장로들이 보좌에 있는 교회를 나타내며, 그들이 하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고 본다. 이것은 매우 그럴듯한 해석이다. 또 다른 해석은 이십사 장로들이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다. 곧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대표들과 신약 시대의 열두 사도들이다. 어쩌면 천사나 그룹과 같은 피조물일 수도 있다. 아니면 하나님 보좌 주위의 이십사 보좌에 앉은 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히 알 수는 없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을 켜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4:5)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성령의 일곱 가지 사역을 기록한 이사야 11:2을 다시 한 번 보라.(계 1:4의 강해 참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4:6)

네 생물은 야생 동물이나 우둔한 동물 같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창조하신 존재들로서, 에스겔 1장과 10장을 비교해 보면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그룹임을 알 수 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4:7)

어떤 사람들은 네 생물에 관한 이 묘사가 4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라고도 한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유다 족속의 사자로 나타내고 있으며, 마가복음에서는 고통받는 종을 의미하는 송아지,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써 신성을 상징하는 독수리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시록 4:8-11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가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 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4:8-11)

본문에는 하늘 나라의 영광이 전개된다. 하늘 나라에 갔을 때 대도시에서 처음 나온 시골뜨기처럼 사방을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사람들에게 “저게 뭐지요?”라고 물어 보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계시록 4장을 자세히 잘 읽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라.

우리는 녹보석 같은 무지개로 둘러싸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십사 장로들의 보좌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쉬지 않고 찬양하는 그룹들도 볼 것이다. 그룹들이 이렇게 찬양할 때에 이십사 장로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 바다 위에 엎드려(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지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좋은 싫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한다면 곤란하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이다. 좋은 싫든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다.

이러한 영적 진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부족한 부분이 모두 채워짐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채움받지 못하고 항상 방황하여 무언가를 더 이루려고 하지만 결코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야 비로소 의미 있고 성취하게 된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11:6)라고 했다. 우리가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부족을 채우는 길은 하나님과 완전한 사귀를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룰 때에 우리는 가장 만족스럽고 온전한 삶에 이르게 된다.

만물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지음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려 든다.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다. 원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바탕 논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벽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벽과 싸울 수도 있고 원한다면 벽에 부딪쳐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우연히 그 벽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 속에 철막대기를 집어넣고 시멘트로 채우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결국 우리 자신만 상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벽은 조금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벽이 우리의 피로 물들 수는 있겠지만 허물어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싸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만 고통을 당할 뿐이다. 하나님과 싸워봐야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우리가 깰 때요, 하나님과의 싸움을 중단해야 할 때이다.